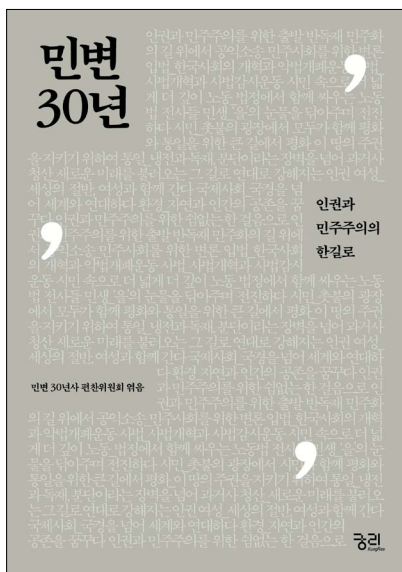


민변 30년

인권과 민주주의의 한길로

30년간의 활동 속에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의 투쟁만으로, 깨어 있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.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민이 없는 민변은 존재할 수 없고 민변의 영향력은 그와 같은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더욱 커졌다. 역사의 변화는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이룩했고 시민과 함께할 때 민변의 힘도 더욱 강했다.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2016년의 촛불혁명은 6월항쟁을 계승하여, 사회변화의 진정한 주체가 깨어 있는 시민임을 확인해주었다.



역은이 |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
분야 | 사회과학(법학)
분량 | 396쪽
판형 | 145*210mm
정가 | 18,000원
펴낸곳 | **공리**
Kungree
ISBN | 978-89-5820-523-4 (03360)
문의 | 김현숙 전화 : 031-955-9818
 팩스 : 031-955-9848
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5-12
www.kungree.com | kungree@kungree.com

